

교회주소: 전남 순천시 풍덕세길 58 성문교회 우:57995

성문교회밴드(링크: <http://band.us/@smchurch>), (밴드: [순천성문교회](#))

경리010.6677.4023/미션010.2433.2955/교회061.723.6192/후원503805.01.004650(우체국.성문교회)

[순천 성문 교회 62번째 이야기]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 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손경민 은혜,찬양중)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매일 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은혜 아니면 한순간도 살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성문교회의 행복한 소식 전합니다.

아내도 자녀도 없이 혼자 여관방에 사시는 임00 어르신, 자녀들은 있지만 잘 섬김 받지 못해서 힘들게 사시는 김00 교우 집에 식료품 전달할 때 마다 더 풍성히 드리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이 큼니다. 임00원 어르신 이 계절이 바뀌고, 세상이 변하여도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고 지금도 같은자리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음을 깨닫고 예수님 믿고 달려진 인생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너무도 순수한 김00 성도님은 찾아뵈실 때마다 집앞 텃밭에 농작물을 넘치게 나눠주셔서 교회가져와 다듬고 씻어서 봉지봉지 담아 교회 주변 상가들과 나누는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김00 성도님 남편이 술과 담배를 끊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가끔 주일에 저는 사랑의 편지를 받습니다. 장애가 있긴 하지만 너무도 순수한 집사님은 "사랑하는 사모님께~" 로 시작한 편지를 읽어주고 머리위로 하트를 만들어 보여줍니다. 평일엔 성경구절과 사랑한다는 문구의 문자도 보내주신답니다.소녀같이 순수한 집사님 사랑에 마음이 따뜻해져옵니다.

성문교회 일꾼인 청년부 두 자매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한자매 부부는 주일 예배에 함께 나오고 있고 다른 자매 남편은 아직 마음이 열리지 않아 예배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처가댁 사정으로 자매 남편들이 결혼 후 처가댁에서 식사대접 한번 제대로 받지 못한것이 마음에 걸려서 두 가정을 저희집에 초대해서 닭백숙하고 그 국물에 야채가득 죽을 쑤어서 몇가지 반찬에 삼겹살도 구워서 맛있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보드게임으로 다음 모임때 밥내기 대결을 했는데 저희 가정이 또 밥을 하게 되었답니다.~^^ 음식을 뭘할지, 그들과 어떤 시간을 보낼지 생각하며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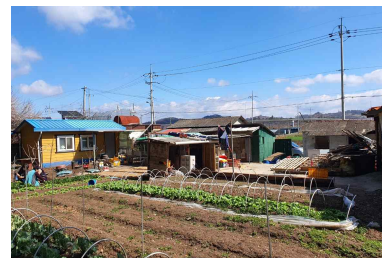
자매들 남편 김00형제와 박00형제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배를 통해 믿음이 성장하길 기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맛보아 알기를 기도합니다.



가족사진 ^^



혼자사시는 임00 어르신
거주하시는 곳입니다



김00 교우 집입니다.



식료품 전달 물품이에요^^

교회 나오신지 얼마되지 않은 최00할머니는 마음이 소녀같으십니다.

다, 주일에 오실때마다 안아드리고 기도해 드렸는데 언젠가부터는 주일에 로비로 들어서시면 저에게 오셔서 서십니다. 코로나 거리두기로 인해 길게 안고 기도 해드릴수 없지만 잠깐 안으며 안부를 묻고 서로 토닥여 줍니다. 몇초 안되는 시간이지만 마음을 여는 순간이 되니 기쁩니다. 예배당에 앉아 기도하는 그분의 손이 참으로 귀합니다. 아픈 사연이 많지만 하나님으로 인해 위로를 얻고 회복되고 심을 얻는 할머니를 보면서 그 연륜에서 묻어나오는 것들로 제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최00할머니께서 노년의 때에 하나님을 많이 행복임을 알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부활주일을 준비하는 한주간에 작년 코로나때 보다 더 강하게 분자대세지와 방분으로 식사나 음용을 금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레 한명씩 강대상 앞으로 나와서 기도함으로 성찬에 참여하고 들어가면 다른분이 나와서 참여 하는 방법으로 은혜의 성찬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른교회 다니고 있지만 성문교회 부활절 성전 꽃꽂이와 화분을 섬겨주신 집사님과 아이들, 화분을 교체해야 했을때 한번 하나님께 올린꽃을 어찌 가져갈수 있겠냐며 로비에 비치해두고 가신 꽃가게 장로님, 이웃들과 부활의 기쁨을 나눌 계란과 떡,오렌지와 음료가 든 선물보따리로 기쁜 부활주일을 보냈습니다. 많은 비를 우산으로 막아내며, 교회주변 상가와 이웃들 집에 전달하는 부활의 기쁨은 더할나위 없이 행복했습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부활에 다시 한번 감격합니다.

고등부 친구들이 졸업을하고 다른지역으로 갔습니다. 연극 배우가 되기위해 대학을 간 친구, 원하는 과에 진학해서 열심히 살고싶다는 친구, 가수가 꿈이어서 연습생으로 소속사에 들어간 친구 이 세 아이들이 어느 곳에서 누구와 있던지 하나님을 잊지않고 하나님을 믿는자로서 신실하고 정직하게서며, 주일이면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길 기도합니다.

은 교우들과 매일 성경읽으며, 그 본문에 목사님이 내주는 성경 본제를 풀고, 묵상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그 하루에 감사를 적고 있습니다. 글을 잘모르는 분들은 필사를하고, 어르신들은 말씀 읽기만 하고 있습니다. 은 교우들이 매일 읽는 주의 말씀이 그들의 발에 등이요 그들의 길에 빛이 되길 기도합니다. 저희 세 아들도 처음엔 어려워하더니 이젠 매일 성경을 읽고 문제푸는 재미를 알고 한주간 암송으로 노래를 부르며 다른 작곡을 하기도 한답니다^^

전도대상자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일주일에 한번씩 복음 메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직은 잠잠하지만 제가 보내는 메세지 읽으며 매주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기간이 다달을 하나님의 때에, 그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배드리시는 기쁨을 누릴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간질 약을 30년을 넘게 먹고있고 정신이 혼미할때가 많은 이00자매님이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남편의 술버릇으로 이00자매님과 그의 딸은 교회로 자주 피신와서 자고 갑니다. 그 남편이 예수님 믿고 변화를 받아 새로운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두 자매 결혼식 사진입니다



교인들과 함께 결혼식에서 축하^^



결혼 한 두 가정을 식사 초대했어요



새로 등록하신 최00 할머니



고등부 친구들 이제 다 성인이네요



아들 삼형제 큐티 하는 중~

어떤 나눔에서 지금껏 가장 행복했을 때를 몇가지 적으라고 할때 눈을감고 생각했습니다. 세아 이들 태어날때마다 아이들 업고 노방 전도를 하고 시장할머니들 섬겼던 그 시간들이 몸은 힘들었지만 가장 행복한 순간들이었고, 교회 건축할 때(한 분 후원자로 시작 된 교회 건축) 어려운 상황들이 많아서 긴긴 시간동안 하나님의 집이 완성되었지만, 그 과정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음을 알기에 계단을 밟는 순간순간이 행복했고 지금도 감동으로 계단을 밟고 있습니다.

남편과 제가 누려왔던 모든것들이, 우리가 지나왔던 모든시간이, 우리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남편과 제가 매일 하나님을 미소짓게하고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며 즐겁고 행복하게 하나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부활절 전도
(전도 대상자들에게...)



부활절 꽃꽂이
섬겨주셨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교회차 세차 중~



교회학교 아이들과
함께 순천만에서



삼형제 이렇게 컸어요.



교우 심방 하면서~



중등부 친구들과 미팅

[기도 제목]

1. 전라남도에서 순천이 가장 코로나 19 확진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교우들이 방황하지 않고, 코로나 19를 잘 극복하고 이겨내서, 신앙이 다시 회복 될 수 있도록 기도 바랍니다.
2. 코로나 19로 인해 여전히 전도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전도하는 일에 게을리 하지 않고 전진하려고 합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길거리 전도는 어려워졌지만 관계전도 지인전도를 통해 계속해서 복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기도바랍니다.
3. 이번에 결혼 한 두 가정을 위해서 기도 바랍니다. 한 남편은 결혼하기 전에 여자친구 따라서 교회에 나오고 있지만 아직 신앙은 없습니다. 또 한 남편은 무신론자입니다. 두 형제님을 위해서 기도 바랍니다.
4. 교회 자립을 위해 기도 바랍니다.
5. 목회자의 건강을 위해 기도 바랍니다. 높은 혈압과 중성지방 수치가 높아서 건강 관리를 하는 중입니다. 치료를 받아서 많이 호전은 됐지만 여전히 관리를 해야 하는 몸 상태입니다.

※ 후원: 중고 컴퓨터